

“부동산 특조법 서둘러 신청하세요”

전주시, 8월 4일 종료... 미등기·등기부 기재사항 불일치 부동산 재산권 보호

전주시는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다음 달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토지 소유자가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지난 8일 밝혔다.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부동산 특조법 대상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전주시로 편입된 12개 법정동(석구동, 원당동, 중인동, 용복동, 상립동, 산정동, 금상동, 중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의 농지 및 임야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 해당된다. 소유권 귀속에 관계없이 현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특조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는 이해관계인 통지와 현장 조사,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교부하며, 신청인은 교부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부동산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주시역 34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서가 접수됐다. 이 중 15필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으며, 4필지는 진행 중, 15필지는 기각됐다.

백미영 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단장은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위해 신상정보 담긴 인식표 무상 배부·지문 사전등록제도 시행

전주시가 치매 노인 실종을 막기 위해 신상정보가 담긴 인식표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실종 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과 지문 사전등록 등 실종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고유번호가 기입된 인식표다.

무상으로 배부되는 이 인식표에는 이름, 사진,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치매안심센터와 경찰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종 노인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인식표는 대상자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배부된 인식표는 다리미를 활용해 치매환자의 옷과 신발, 손수건 등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부착한 상태에서 세탁을 해도 된다.

인식표는 80매와 보호자 보관용 실종 대응카드가 함께 지급되며, 인식표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무상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는 2018



년부터 치매 노인의 자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치매 노인 발견 시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지문 사전등록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치매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치매환자와 함께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3-281-6238)로 문의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이밖에도 △치매환자 도움물품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가족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 등 치매 노인을 보호하고 치매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자연재해·대중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후유장애 입은 시민 위해 제도 운영

전주시는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모든 시민에게 보령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일 경우에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또는 대중교통, 강도 범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이다.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은 5000만 원까지, 대중교통과 스포츠 관련 사고, 강도 범죄 등은 1000만 원까지, 익사사고 사망은 9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1577-5939)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금은 단일사건당 1회 지급되며, 개인이 든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철현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통합 운영

코로나19 검사·처방·진료까지 원스톱 의료기관 71개소

코로나19 증상자와 호흡기 환자들은 가까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하면 진료·검사부터 처방, 재택진료, 입원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이달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온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

점의료기관, 외래 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원 등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명칭이 일원화돼 통합 운영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기능별로 나뉘어 있던 진료체계를 통합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호흡기 환자 및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진료·검사·처

방·재택치료·입원 등을 통해 병의 원 중심의 일관으로 체계로 단순화하고, 대면진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전주시역에서 운영 중인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218개소로, 보건소는 이중 71개소를 원스톱 의료기관으로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원스톱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현재 코

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방접종 완료자의 면역력 감소 및 여름철 활동량 증가,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재유행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은 7월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업데이트 이후 심평원 홈페이지, 코로나19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편리한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 이용하세요”

전주시,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로 간편 납부 가능

전주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으로 받은 다음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게 되면 고지서의 분실 및 배달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고지서 1장당 250원,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5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지서 출력과 발송에 따른 예산 및 노동력 절감, 자원 절약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완산 063-220-5301, 덕진 063-270-6492)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송달이 가능하고, 고지서가 앱에 저장(도달)된 때 송달효력이 발생한다. 신청 가능한 모바일 앱은 간편결제 앱 3종(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과 금융 앱 15종(광주, 경남, 국민, 금융결제원,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새마을금고, 신한, 전북, 케이뱅크, 하나,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총 18종이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홍보 전단을 동별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입구 등에 게시하고,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자생단체 등에도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19%인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률을 올해 말 25%까지 올릴 계획이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정은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인력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중요고지서 절감을 통해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연간 약 120만 건의 정기분 세목의 고지서를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우편발송 예산액만 약 8억 원에 달한다.

/김윤상 기자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전주완산소방서, 화재예방 대책 추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라 자연발화 등 열 축적이 원인인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는 17건으로 부상1명, 재산 6.2여억 원의 피해를 초래했다. 화재원인은 화학적 요인이 7건으로 가장 많으며, 기계적 요인(4건), 자연적요인(2건) 등 다양하다. 작년 덕진구 폐기물업체에서 소각 작업 중 비산된 불씨가 폐기물에 착화돼 건물1동 소실 및 1.8여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또한 화재예방법 상 특수가연물에는 재생자원 연료(고형폐기물 원료)가 포함될 경우로 화재발생 시 특수가연물로서 연소확산속도가 빨라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주완산소방서는 폐기물 관련업체에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주요내용은 △가연성 증기, 미분 발생 우려시 환기 △자연발화 위험 물질



저장시 온도 상승 방지 조치 △폐기물 쌓는 면적 등을 띄어 열축적 방지로 자연발화 조치하며 △각 시설별 자체 순찰대 편성 후 취약시간 폐기물 순찰 △폐기물 시설 내 CCTV 등 관련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취약시기 시설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수 서장은 "건축물과 달리 폐기물 관련시설은 화재안전분야 관리·감독의무 및 소방시설 적용기준이 미흡하다"며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안심할 수 있는 여름철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기센터 직원들, 건강한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 ‘앞장’

매주 금요일 전주푸드 효천점서 장 보는 '저탄소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소속 직원들이 안전한 지역농산물 소비활동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에 나섰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소속 부서와 출연기관의 직원들이 전주푸드 효천점을 찾아 주

말 휴일 동안 가족들과 먹을 과일과 채소, 반찬, 육류 등으로 장을 보는 '저탄소식생활 실천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농업기

술센터 직원들은 지난 5월부터 매주 장보기 행사를 통해 탄소 저감을 위한 로컬푸드의 중요성과 지역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 또, 올해 새롭게 개장한 전주푸드 효천점의 홍보 및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푸드 효천점은 지

역 농민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문을 열었다. 특히 효천점에는 포장지 없는 과일채소 친환경 매대가 설치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타 직매장과 차별화된 운영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지난 2020년부터 전주푸드 경기장점에서 지역농산물 소비의 날 행사를 전개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ESG경영 협력 MOU를 체결하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노력을 인정받아 AT로부터 '지속가능한 ESG 경영 최우수 협력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젊은 직원들이 미리 준비해온 메모를 보면서 채소, 과일 등 먹거리를 장바구니에 담은 모습이 예쁘고 대견하다"며 "건강한 지역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나비효과가 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주푸드를 사랑하고 탄소 저감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소속 부서와 출연기관의 직원들이 전주푸드 효천점을 찾아 주말 휴일 동안 가족들과 먹을 과일과 채소, 반찬, 육류 등으로 장을 보는 '저탄소식생활 실천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설공단, 'ESSG 으쓱 경영' 가치 창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ESSG 경영'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시민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공단은 'ESSG 으쓱 경영'의 가치 창출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Safety), 윤리경영(Governance)과 관련해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으로, 'ESSG 으쓱 경영'은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공단의 특성을 감안해 ESG 경영에 안전(S)을 더한 경영 철학이다. '으쓱'은 E(환경)와 S(사회), S(안전), G(윤리경영)

을 한글식으로 연음 발음한 것으로, 시민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겠다는 공단의 의지가 담겨 있다.

공모 기간은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이다. 아이디어는 화상채육관 내 전주시설공단 전략기획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whicks@jss.or.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접수된 아이디어들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3등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30만 원, 최우수상은 20만 원, 우수상은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단은 시민 참여 확대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민 참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